

보도해명자료

('18.7.17)

수신 :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

제목 : 탈원전 앞친데 폭염 덮쳐...예비전력 2년來 최저
(7.17, 매일경제)

1. 기사내용

1. 탈원전 앞친데 폭염 덮쳐 예비전력 2년來 최저
2. 산업계에서는 지난겨울 전기 사용을 제한 당해 공장 가동을 멈춰야 했던 급전지시(전력수급조절요청) 대란이 올여름에도 재현되는 게 아니냐고 우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1. 때 이른 무더위에 따라 전력수요가 급증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탈원전 정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

* 최대전력수요 추이(만kW) : (7.11일) 7,941 → (7.12일) 8,139 → (7.13일) 8,208 → (7.16일) 8,630

- 탈원전 등 에너지전환 정책은 향후 장기적인 추세로 친환경 전원 믹스로 전환하는 것이지, 당장의 단기적인 전력수급과는 무관함
- 통상, 여름철 최대전력수요는 8월 2~3주에 전망됨에 따라, 동 시기 前에 정비를 조속히 완료하고 최대한 발전기가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중이며,
 - 무더위가 지속되더라도 전력수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부 및 전력그룹사가 최선을 다할 계획임

- ② 올 여름에는 기업들의 안정적 생산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DR 발령 요건을 개정하여 예비력이 일정수준(1,000만kW) 이하에서 목표수요(8,830만kW) 초과가 예상될 경우에 DR을 시행할 계획이고,
- DR 요청시에도 하루 前에 예고하여 참여기업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임.

※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최우석 과장 (044-203-5240)
권용균 사무관(044-203-5254)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